

사극이나 범죄액션이나... 한국영화 빅3 격돌



'안시성'



'명당'



'협상'

웅장한 볼거리 '안시성' 명품 픽션 '명당' 숨통 조이는 스릴 느끼고 싶으면 '협상' 할리우드 영화 '서치' '더 닐'도 선전

올해 추석 연휴 극장가 상차림은 여느 해보다 풍성하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사극 3편과 현대물 '협상' 등 한국영화 4편이 등판했다. 가장 먼저 출격할 '물괴'는 누적 관객 70만 명을 넘지 못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할리우드 SF 액션과 공포물도 가세해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듯하다. 통상 가족 관객이 물리는 명절 연휴에는 시대극이 강세였지만 100억원 이상 투입된 대작이 포진해있어 누구도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 추석 극장가 전체 손익분기점이 15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한가위 극장가는 '제 살 깎아먹기'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도 '명절=사극' 공식이 이어갈지, 아니면 지난해 '범죄도시' (664만명)의 갑작 흥행처럼 새로운 다크호스가 떠오르지 주목된다. 영화별 관련 포인트를 짚어봤다.

화려한 스펙터를 '안시성'

총 제작비 220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고구려 때 20만 당나라 대군에 맞서 안시성 성주 양만춘과 5000 명의 군사들이 88일간 싸워 이긴 안시성 전투를 그린다. 영화는 그동안 스크린에서 깊게 조명하지 않았던 고구려 시대로 시선을 향했다. 고구려에 대한 사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 이 작품도 역사에 남아있는 안시성과 양만춘에 관한 단 3줄뿐인 기록으로 시작했다. 연출을 맡은 김광식 감독은 영화의 포문을 여는 주필산 전투와 2번의 공성전,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토산 전투 등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전쟁 장면들을 실감나게 연출하기 위해 100권의 서적을 참고했다.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과 당 태종, 사물 등 주요 인물을 입체적으로 살리기 위한 고증에도 신경 썼다. 조인성은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역을 맡아 리더십을 보여줬다. 주필산 전투에서 패한 후, 연개소문의 비밀 지령을 받고 안시성에 들어온 태학도 수장 사물 역은 남주혁이 맡아 스크린 데뷔를 마쳤다. 양만춘을 언제나 듄직하게 보필하고 성민을 지키는 '안시성의 부관' 추수지 역은 배성우가 맡아 활약한다. 빠른 행동력과 공격적인 돌파력으로 고구려의 최강 기마부대를 이끄는 기마대장 파소 역엔 엄태구가 나선다. '여군' 백하 부대의 리더 백하는 김설현이, 고구려의 미래를 내다보는 신녀 시미는 정은채가 연기했다. <12세 관람가>



'서치'

흥미로운 소재·명품 연기 '명당'

조선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명당 뒷자리를 놓고 왕위를 노리는 자와 지키려는 자간의 치열한 쟁탈전을 그린다. 풍수지리라는 소재가 중장년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함께 봐도 무리가 없다. 천재지관 박재상 역을 맡은 조승우를 비롯해 흥선역의 지성, 권세기인 장동 김씨 일가 김좌근 역의 백윤식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다양한 인간군상을 진정성 있게 펼쳐냈다. '사도' '관상' '광해'를 잇는 '픽션' 사극이다.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재지관 박재상은 명당을 이용해 나라를 지배하려는 장동 김씨 가문의 계획을 막다 가족을 잃게 된다. 13년 후, 복수를 꿈꾸는 박재상 앞에 세상을 뒤집고 싶은 몰락한 왕족 흥선이 나타나 함께 장동 김씨 세력을 몰아낼 것을 제안한다. 뜻을 함께해 김좌근 부자에게 접근한 박재상과 흥선은 두 명의 왕이 나올 천하명당의 존재를 알게 되고, 서로 다른 뜻을 품게 된다. <12세 관람가>

쫄깃한 범죄액션 '협상'

추석 연휴에 선보이는 유일한 현대물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던 최고의 협상가 하재운(손예진)은 긴급 투입된 현장에서 인질과 인질범 모두 사망하는 사건을 겪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로부터 10일 후, 경찰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제 범죄조직의 무기 밀매업자 민태구(현빈)가 태국에서 한국 경찰과 기자를 납치하고 그녀를 협상 대상으로 지목한다. 이유도 목적도 조건도 없이 사상 최악의 인질극을 벌이는 민태구와 그를 멈추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협상가 하재운에게 남은 시간은 12시간. 묵숨



'더 닐'

을 건 일생일대의 협상이 시작된다. 영화의 특성상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벌어지기에 영화 속 프로덕션 디자인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 극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공간은 하재운이 민태구와 모니터를 통해 팽팽한 맞대결을 펼치는 '상황실'이다. 손예진과 현빈뿐 아니라 한국영화계 대표 개성과 배우 김상호, 팔색조 매력을 지닌 연기파 배우 장영남, 이문식, 신스틸러 장광과 조영진까지 탄탄한 연기 내공과 다양한 매력으로 무장한 실력과 배우들이 대거 합류했다. <15세 관람가>

틈새 노리는 할리우드 영화

선댄스영화제가 선택한 '서치'는 디지털 기기 속 화면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빠르게 풀어나가는 참신함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 영화는 한 가족의 삶과 딸의 실종, 그리고 이를 추리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OS 운영체제와 모바일, CCTV 화면으로 구성했다. 데이빗은 딸 마고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3통을 받지 못한 뒤 딸이 실종됐음을 알게 된다. 경찰의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실종된 딸 마고가 향하던 곳이 밝혀지며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된다. 딸 마고의 노트북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은 데이빗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상상조차하지 못한 진실을 알게 된다. <12세 관람가> 2010년대 들어 가장 성공한 공포영화 시리즈로 자리 잡은 '컨저링'에서 나온 '더 닐'은 지난 19일 간판을 달았다. 2016년 '컨저링 2'에서 등장해 공금증을 자아냈던 수녀 악령을 전면내 내세운다. 제임스완 감독이 창조한 '컨저링 유니버스'의 공포영화 중 가장 무섭다는 평을 받고 있다. <15세 관람가>

다큐멘터리 '타사 튜더' '린 온 피트' '죄 많은 소녀' 광주극장 다양한 영화 상영



'타사 튜더'

광주극장은 추석 당일인 24일을 빼고 연휴 기간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다. 20일에는 다큐멘터리와 영화 3편이 개봉했다. 다큐 '타사 튜더'는 동화작가이자 자연주의자인 타사 튜더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예술을 담았다. 동화 같은 일상과 그의 그림, 인형 등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같은 날 개봉한 '체실 비치에서'는 로맨스 영화로 '어톤먼트' 작가 이언 매튜언이 자신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직접 각색해 완성도를 높였다. '레이디 버드'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시릴리아 로넌이 섬세한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영화 '린 온 피트'는 아빠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열다섯 살 찰리가 우연히 경주마 조련사 딸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고, '린 온 피트'라는 말을 만나 겪게 되는 우여곡절을 담고 있다. '45년 후'로 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한 앤드류 헤이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찰리를 연기한 찰리 플러머는 74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이외에 '봄이 가도', '더블랙', '죄 많은 소녀' 등이 명절 기간에 상영된다. 문의 062-224-585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3605-5000

